



## 부안수협, 조합원 자녀들에 장학금 지급

부안수협(조합장 송광복)은 지난 22일 조합원 자녀 48명에게 부안수협 산악회 2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포함해 총 2,5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통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인 조합원 자녀를 독려하고, 어업인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연차사업으로 2011년부터 조합원 자녀 장학금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송광복 조합장은 “조합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신 조합원님들께 조급이나마 보답하고자 지역민에게 밀글, 육성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더 확대해서 수산가족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정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임실 청용면, 2024년 복지기동대 발대식 개최

청용면이 지난 21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4년 청용면 복지기동대 발대식이 개최됐다.

복지기동대는 2024년 전북형 지역보호체계 구축사업으로 청용면에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에 있는 위기기구 및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대상자의 필요에 맞추어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이다.

청용면 복지기동대는 청용면 행복보장협의체 위원, 전기·설비 기사, 요양보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능기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기동 복지기동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떤지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설동원 청용면장은 “마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복지기동대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복지기동대와 함께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정읍시, 음식점 시설 개선지원 대상업소 모집

정읍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음식점 시설 개선지원 사업 대상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식품업체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주방, 홀·화장실 등의 시설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업소당 전체 비용 최대 70%(최대 700만원)가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업소에서 부담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5일까지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사) 한국외국어종양회 전북지회 정읍시자부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위생업소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청결한 외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금구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점검 봉사활동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권혁운)가 지난 22일 2층 소회의실에서 대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18세대에 가스 수도, 단열 점검 등 주거환경개선 점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2개 조로 나눠 실시했으며 복지기동대원들의 세심하고 철저한 참여로 거주자의 안전과 폐적한 환경을 위해 기정 내 취약한 부분을 찾는 활동을 펼쳤다.

한 대상자 어르신은 “복지기동대가 찾아와서 불편했던 부분을 빠져서 고맙고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쓰는 금구면 복지기동대가 있어 든든하다”고 밝혔다.

권혁운 복지기동대장은 “복지기동대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만날 때마다 더욱 힘이 난다며 많은 주민들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쓰겠다.”며 “이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앞장서 적극 봉사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두일군 금구면장은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복지기동대의 활동이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세계 물의 날, 용담호 1급수 유지 힘 모으길”

진안군 공무원 · 용담호 협의회, 진안천 합동 정화활동 펼쳐

진안군과 용담호수 질개선 진안군주민협의회(회장 김정길) 및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22일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진안천의 대대적인 하천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정화 활동은 용담호 주민협의회 · 강살리기네트워크 임원 및 회원, 진안군청 환경과, 진안읍사무소 공직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진안 고원시장 앞 학천교에 집결하여 위쪽으로는 진안읍 미아파출소 주변과 아래 방향으로 진안교유지원장 앞 하천까지 약 1.3km에 이르는 구간 정화활동을 벌였다.

진안천은 전북 5개 시 · 군 120만명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용담호의 상류 지역으로 진안군의 약 40%



가량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오염원 발생도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된 날인 만큼 앞으로도 민 · 관이 협력하여 하천 정화 활동 등 환경 정화활동을 꾸준히 하여 용담호 수질개선뿐 아니라 청정 진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길 회장은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로 용담호 상류지역의 진안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하천 정화 활동의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며 용담호 1급수 유지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정읍시, 장금이파크 콘텐츠 제작 · 설치 중간보고회

정읍시는 지난 20일 장금이파크 내부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이학수 시장과 용역사 등 8명이 참석해 장금이파크 전시 ·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금이파크 내부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민의 고유한 장금이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장금마을 테마전시 △다양한 치유법을 가진 장금이 테마전시 △시계계절 정읍을 테마로 한 시계 테마관 △정읍의 음식을 통해 치유하는 약식동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음식 치유 체험관 등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특색 있는 공간 구성안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학수 시장은 “장금이파크는 정읍민의 고유한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라며 “이번 용역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치유 체험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장수군, ‘2024년 세계 물의 날’ 맞아 환경정화활동 펼쳐

장수군은 지난 21일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군청 전 직원이 앞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내 하천 주변 등 곳곳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세계 물의 날’은 갈 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수질오염 방지 및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날로, 1992년 제47차 UN총회에서 ‘Agenda 21’에 포함된 건의를 받아들여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정화 활동에서는 최훈식 군수는 비롯한 군 공무원 100여 명과 주민 등이 참여해 장수천 일대와 장수읍 시가지 주요 도로변 및 골목 안길의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세계 물의 날을 홍보했다.

최훈식 군수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위해 군민분들

께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로 청정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 ‘아동이 웃어야 남원이 웃는다’ …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남원시는 지난 21일 ‘아동이 웃어야 남원이 웃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신고 전화 홍보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의 관심 유도와 비폭력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을 주제로 홍보하는 등 아동을 돌립된 인격 체로 종종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양육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남원시는 관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예년에 비해

며, 모집은 수시로 진행하고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063-620-6942) 문의하면 된다.

차미화 여성기획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군 상담복지센터, 1차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 개최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지숙, 이하 센터)는 22일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의 발굴 및 관련 사례를 논의하고,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을 모색. 기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다.

이 날 회의는 이지숙 센터장의 주재하에 2023년 청소년 안전망 실적보고 및 2024년 각 기관별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위기청소년으로 발굴된 사례에 대한 집중 토론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023년도에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11명의 청소년이 미술치료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센터는 관내 학교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 ·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한 내용 문의 및 프로그램 신청은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33-433-2877)로 하면 된다.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종진), 남원시립 도통중학교(지점장 박미연), 남원원형 한빛지점(지점장 이규하), 전북은행 남원지점(지점장 박은영), 온누리신협 도통지점(지점장 박대규), 동남원새마을금고 도통지점(지점장 임종택), 남원시마을금고 동부지점(지점장 조승규)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다수 금융기관 지점은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 사업 운영에 쓰일 세탁 세제를 기부할 예정이며, 기부받은 세제는 대형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도통동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소전자 도통동장은 기부에 동참한 관내 다수 금융기관 측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봉사에 한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도통동,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센터장 김종진)는 지난 21일, 거동 불편 저소득 1인 가구에 전등 무선리모컨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주)중인일렉트리웨어의 업무협약으로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았으며, 어두운 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난간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 어르신은 “나리가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들는데 리모컨으로 전등을 조종해서 너무 편하다.”고 전했다.

한편 소년자녀 복지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두운 밤에 방 안에서 각별한주의가 필요하다며, 무선리모컨을 이용해 편하고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 쌍봉사 · 제일약국,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사협)는 지난 21일 진안 관내 사찰인 쌍봉사 광장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쌍봉사 보경스님은 2021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통해 저울의류 후원을 시작으로 협의회와 인연을 맺고 봉사자 10여명과 함께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밀반찬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또한 백미 후원도 매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역시 관내 저소득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10kg 10포(3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또한 진안 제일약국 서예영 약사는 좋은 뜻에 동참하고자 100만원으로 팔양강 세트를 구매해 143가구에 전달했다. 제일약국은 지난 2018년 첫 후원을 시작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구충제를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 중이며 지금까지 총 4,700만원 상당의 후원이 이뤄졌다.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된 백미와 팔양강세트는 사회복지협의회 음 · 면 · 지회장 및 회원 · 사찰 · 복지협의회 사무국 연계로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